

보도시점 2023. 12. 7.(목) 10:00 배포 2023. 12. 7.(목) 09:00

김주현 금융위원장, 부산·경남 지역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

-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.1일 중소기업 간담회에 이어 12.7일에는 부산·경남지역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
- 향후 중견기업들이 스케일업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들의 의견을 토대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검토

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월 7일 (주)퓨트로닉(부산소재 예비중견기업)에서 「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
이날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는 지난 12월 1일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어 중견기업들의 경영 여건과 금융이용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- (일시·장소) '23.12.7(목) 10:00, (주)퓨트로닉 1F 회의실
- (참석자) 금융위원장(주재), 부산·경남 지역 중견기업 6개사 대표*, 산업부, 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업은행 등

* 퓨트로닉(자동차), 범한메카텍(화공플랜트), 비에이치아이(발전설비), 한국특강(철강), 삼원약품(의약품 도매), 오리엔탈마린텍(선박부품)

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고금리 등 3高 현상과 공급망 불안정, 우수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 등을 최근 경영 여건상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언급하였으며, 향후 중견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신산업과 해외로 적극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정책금융이 중견기업 지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하였다.

※ 간담회시 언급된 주요 정책지원 요청사항

- ① 금리 및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, 자국경제 중심 체제 확대로 공급망 불안정 심화
→ 기술 발전 대응 및 해외 진출을 위해 **공급망 안정화, 저금리 자금** 등 지원 필요
- ② 3高 현상으로 중견기업도 자금유동성 어려우나 정부지원은 중소, 벤처기업에 집중
→ **대규모 투자**로 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**정책금융 확대 필요**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인하 등)
- ③ 생산현장의 **인력 부족 문제**가 심각하고 **인건비 등 부담 큼**
→ 해외 기술인력 채용 확대, 고용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필요

김주현 금융위원장은 “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,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”고 언급하며 우리경제에서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

향후 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향으로 ❶중견기업이 성장 규모에 걸맞게 충분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**보증한도를 성장단계별로 확대**(100억원 → 최대 500억원)하고, ❷중견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**P-CBO의 금리를 낮추는 한편**, ❸중견기업이 조기에 자금을 회수해서 유동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**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지원**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·추진 중이라고 밝혔다.

금융위원회는 **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**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**중소·중견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**할 예정이다.

[별첨]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남동우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양병권 (02-2100-2861) 허 성 (02-2100-2862)